



좌절하기엔 너흰 아직 젊다

30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도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대한민국 대 일본 결승전. 한국 류승우가 슈팅이 빛나자 자아 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약체’, ‘골짜기세대’와 같은 수식어와는 이제 작별이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지난 3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은 카타르 도하의 레퀴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과 대회 결승전에서 2-0으로 앞서가다 후반에 내리 3골을 내주고 2-3 역전패를 당했다. 이로써 한국은 일본과 올림픽 대표팀 간 경기에서 최근 2연승 뒤 패배를 당해 통산전적 6승4무5패를 기록했다. 더불어 올림픽 최종예선 무패행진도 34경기(25승9무)에서 멈췄다.

결승전에서 속적 일본을 꺾고 아시아 정상에 올랐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이다. 그러나 준우승이라는 성과도 대회 전까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신 감독만 “우승이 목표”라고 이야기했을 뿐, 축구 관계자들조차도 이번 대회에서 3위 이내에 든 팀에게만 주어지는 올림픽 본선진출 티켓 확보에 대해서도 장담하

신태용호 AFC U-23 챔피언십 일본에 2-3 역전패...준우승

‘역대 최약체’ 평가에도 8연속 올림픽 진출 황희찬·문창진 등 스타 탄생...수비는 과제

지 못할 정도였다.

실제로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 ‘심판의 오심 탓에 이겼다’, ‘수비가 불안하다’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팀은 매 경기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대회가 낳은 최고의 스타 황희찬(잘츠부르크)도 마찬가지다. 황희찬은 이번 대회에서 우즈베키스탄과의 1차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하고, 예선과의 2차전에서도 도움을 기록했다. 그러나 스트라이커로서 골을 넣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공격수로서 성장통을 겪는 황희찬에게 신 감독은 면담을 통해 “조바심을 내지 말

아라. 상대팀 수비를 흔들해주는 것이 네 역할이다”라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결국 황희찬은 카타르와의 4강전에서 후반 교체출전한 뒤 3-1 승리의 밑거름이 됐다. 특히 경이적인 70m드리블 때 보여준 돌파력은 축구팬들에게 미래 한국축구에 대한 기대감을 줄 정도였다.

기대한 것만큼 골이 터지지 않았던 김현(제주)도 경기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을 보였다. 김현은 황희찬 대신 선발 출전한 4강전에서 최전방에서 적극적으로 공중볼을 다루고 2선 공격수에게 기회를 내줬다. 수비도 마찬가지다.

수비형 미드필더를 1명만 배치하고 수비수에게 활발한 오버래핑을 지시하는 신

감독의 스타일상 역습을 받을 경우 수비의 공백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경기 집중력이 흔들리면서 위태로운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림픽팀의 수비진도 경기를 거듭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상민(서울)과 이슬찬(전남)은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양쪽 측면에서 안정감을 속성시켰다. 연제민(수원)과 송주훈(미토 홀리호크)도 상대방의 역습기회에서 끈질기게 수비라인을 지켰다. 수비형 미드필더 박우우(서울)도 4강전에서 틀림이 리베로 역할을 맡으면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이들이 아직도 23세 이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크다.

8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우며 태극전사 선배들이 이뤄놓은 명예를 지킨 신태용호가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美 매체 “강정호 올해도 기대”

‘스타 2년차 트리오’ 꼽아

미국의 한 야구 매체가 한국인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를 지난해 신인왕 크리스 브라이언트(24·시카고 컵스)와 나란히 ‘스타 2년차(sophomore) 트리오’ 중 한 명으로 꼽았다.

‘아웃사이드 피치’는 지난 31일(한국시간) 강정호와 브라이언트, 매트 더피(25·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등 지난해 메이저리그 신인으로 맹활약한 내야수 세 명이 데뷔 2년차에도 성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강정호에 대해서는 “올 시즌 초 라인업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가 부상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한다면, 그가 2015년 보여준 성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정호는 지난해 9월 경기 중 무릎 부상으로 시즌아웃되기 전까지 타율 0.287, 출루율 0.355, 장타율 0.461에 15홈런 기록했으며 전체 내셔널리그 선수 중 WAR 20위를 차지했다.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타율(0.176)과 출루율(0.243)은 강정호에게 못 미쳤지만, 26홈런과 장타율 0.488로 폭발적인 공격력을 자랑했다.

내셔널리그 올해의 신인 투표에서 더피는 2위를 차지했고, 강정호는 3위에 올랐다.

이 매체는 “이들은 지난해 WAR(대전 선수 대비 승리기여도)에서 가장 앞선



내셔널리그 신인들이었다”며 “신인으로서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들 모두 데뷔 첫해에 WAR 기준으로 내셔널리그 3루수 상위 5위 안에 들었다면서 “이들이 올해에도 작년과 똑같은 성과를 낸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베테랑 선수들과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

Spring KIA 스프링캠프 돌입

김원섭·윤석민 오키나와...김진우 대만으로

‘호랑이 군단’이 1일 전면적인 캠프 체에 돌입한다.

KIA 타이거즈 2군 선수단이 1일 대만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한다. 애리조나 캠프지와 별도로 합평 팰리저스 필드에서 워밍업을 했던 김원섭·윤석민 등 베테랑조도 1일 오키나와로 건너가 본격적인 스프링캠프를 치른다.

2군 대만 캠프는 내달 4일까지 타이완 진리대학 야구장에서 운영된다. 이번 대만 스프링캠프에는 정희열 2군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7명, 선수 27명 등 총 34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팔꿈치 수술로 재활을 해왔던 투수 김진우와 지난 교육리그에서 머리 부상을 당했던 포수 한승택도 대만행 비행기에 오른다.

스프링캠프 초반(2월 2일~14일)에는 체력 및 기술·전술 훈련을 소화한다. 15일부터는 LG·롯데·NC 등 한국 2군 팀, 대만 팀(타미고·통이·EDA)과 11차례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선수단은 1일 오후 9시10분 무안공항을 통해서 대만으로 이동한다.

한편 합평에서 훈련을 해왔던 투수 최영필·김병현·김광수·윤석민·양현종(이상 투수), 이성우(포수), 김민우(내야수), 김원섭·김주찬(이상 외야수) 등 9명은 1일 오전 9시 40분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간다. 애리조나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단은 7일 일시 귀국한 뒤 8일 일본 오키나와로 합류, 2016시즌을 향한 경쟁을 펼친다.

◇KIA 대만 캠프 명단

▲코칭스태프(7명):정희열 김민호 김상훈 김진진 백인호 신동수 조경환 ▲투수(13명):곽정철 김지훈 김진우 김현준 남재현 문성우 박기철 서덕민 신창호 유근상 전상현 정동현 최현정 ▲포수(4명):오두환 권유식 최재원 한승택 ▲내야수(6명) 강한원 전현태 홍재호 박찬호 정상교 박정우 ▲외야수(4명):임한용 이호신 전은석 이성우

/김여울기자 wool@

아파도...화나도...오늘도 난 참는다



광주FC
태국 캠프를 가다

경기를 하는 동안에도 경기가 끝나고 그들은 조연이다. 스포트라이트 밖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은 승점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광주 FC의 정호정이 말하는 ‘수비수들의 사생법’.

투박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뛰는 정호정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지더라도 이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의무 트레이닝이 들어가 때까지 일어서지 않는다면 ‘정말 많이 아픈 것’이다. 참고 또 참는 자리라는 게 그의 이야기다.

정호정은 “충동이 있어도 바로바로 일어나려고 한다. 상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수비수는 침착하고 흥분을 안 해야 한다. 순간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로 좋아야 한다. 머리가 더 좋으면 좋겠다”고 웃었다.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는 수비수들은 머리로 쉴 틈이 없다. 방심은 패배로 연결된다.

정호정은 “경기 중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비디오를 보면서 상대 분석을 많이 한다. 상대 선수가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에 따라서 수비도 달라진다. 지피지 기이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어떻게든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고 뛰다”며 “수비수 선택이 잘못되면

정호정 ‘수비수가 사는 법’

학창시절 골 넣었을때보다

공격수 막을때 쾌감 못잊어

머리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상없이 팀 잔류 지키겠다

바로 실점이다. 압박으로 놀라야할지, 지연을 해야 할지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한다. 내가 판단해서 골을 먹으면 게임 중에도 계속 생각이 난다. 그걸 극복하는 선수가 좋은 수비수다”고 말했다.

묵묵히 참고 견디는 역할은 밖에서도 계속된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스포트라이트는 공격수의 몫이다.

중계시에도 수비수가 원샷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큰 실수를 할 경우엔 주목 받는 이들도 있다. 자신의 이름을 달고 뛰는 프로 선수, 당연히 섬세한 마음은 있다. 득점·도움 등 훈장처럼 따라다니는 공격 포인트와 달리 수비수를 이야기해줄 특별한 기록도 없다.

정호정은 “골 넣은 사람, 잘하는 사람만 주목받으니까 섬세함도 있지만 팀이 우선이다. 그걸 참는 마음이 없었다면 수비수

를 못했을 것이다. 가끔 내 프로필을 찾아보는 데 이름 옆에 기록란이 온통 0이다. 기록이 없는 걸 보면 될 했다. 한 게 없는 것 같아서 허탈감이 들기도 한다”고 솔직한 심정을 밝혔다.

그래도 그는 수비수라는 이름이 자랑스럽다. 수비수이기에 느끼는 쾌감과 자부심이 있다.

정호정은 “중학교 때까지는 공격수로 뛰었다. 골을 넣었을 때의 그런 맛을 알지만 상대 공격수를 막을 때의 쾌감을 잊지 못한다. 또 수비수들이 잘 뺏아서 공을 가져다주었다. 잘 받쳐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고생했던 것 같아 된다. 골만 안 먹으면 승점을 얻는 것이다. 그 역할을 해냈을 때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광주 선수로 뛰는 세 번째 시즌. 1988년 생인 그는 어느새 팀의 ‘No. 4’가 됐다. 그라운드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노련함을 더해야 한다.

정호정은 “이 나이에 벌써 고참급이 됐다. 광주가 많이 젊어져서 어깨가 무겁다. 위에도 봐야하고, 아래도 살펴야 한다. 중간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힘난한 시즌이 될 것이다. 상대도 우리에게 대해 더 많이 알고 준비를 했을 것이다. 중요한 때마다 다쳤다. 부상 없는 시즌을 위해 개인운동을 열심히 했다. 부상 없이 팀 잔류를 지키고 싶다. 경기장에서만큼은 파이팅 넘치고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방북=김여울기자 wool@

Winter 광주·전남 동계체전 모드

훈련 구슬땀...빙상·스키 오늘부터 사전경기

국내 최대 겨울 스포츠대회인 전국동계체전을 앞둔 광주·전남 선수들의 훈련 열기가 뜨겁다. 당장, 빙상·스키 선수들은 1일부터 사전 경기로 치러지는 동계체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며 시·도 체육회도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분주하다.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6개 종목 159명의 임원·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 97회 동계체전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 선수단은 중등부 선수들의 아이스하키 출전, 스키·스노보드, 빙상 종목에서 선전을 펼치면 지난해(9위) 보다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도 최근 열린 ‘전남선수단 훈련 개시식’을 통해 동계체전에 참

석하는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전남 선수단은 바이애슬론, 스키·스노보드 등 6개 종목에 195명 규모로, 지난해(10위)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 순위 9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남체육회는 특히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3관왕을 달성한 문지호(28·신안군청)를 비롯, 지명근(스키 스노보드) 등의 선전이 이뤄질 경우 목표 달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 97회 동계체전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강원·전북·인천 등에서 전국 17개 시·도 3980여명의 임원·선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지며 빙상·스키 등은 1일부터 4일간 사전 경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지우기자 dok2000@kwangju.co.kr